

보도시점 2024.10.21.(월) 10:30분 이후 배포 2024.10.21.(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사회학회,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사회학회(이하 '사회학회', 학회장 장덕진)는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10:00-12:45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 제 :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 앞선 3차례 포럼에서는 각각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1차, 6.12),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2차, 8.21),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3차, 9.27)을 논의하였으며,
-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소위 ‘황금티켓 증후군 (Golden ticket syndrome)’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초혼연령 (13) 男32.2세 女29.6세 → (23) 男34.0세 女31.5세 / 초산연령 (13) 30.7 → (23) 33.0세

-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Mitigation)에 도움이 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Adaptation)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①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R&D·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히고,

- 특히, “최근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로 사회 초년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다”고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앞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제공,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③ ‘고졸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졸취업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지원, 군입대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 아울러, “고졸취업자가 ‘학력’ 보다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청년층 조기입직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최근 기업 채용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정책 대응방향’, ‘청년 사회진출 지연 실태 및 대응방안’이 차례대로 발표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고졸취업 유인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준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기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 사회초년생들의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사회진출 지연 상황과 원인을 학업 단계(school continuation)와 학업 후 구직·취업 단계(school to work continuation)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기간 단축, 청년 NEET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계봉오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응한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 강화, 공채시스템 개선 및 이를 통한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 대학 학제 유연화, 사회초년생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공론화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저고위와 연구회는 앞으로도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이슈*와 관련된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논의주제(안): (11월)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12월) 근로시간 유연화 및 계속고용 확산 방안

- <붙임> 1.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인사말씀. 끝.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종진 (02-2100-1246)
		담당자	연 구 원	김민수 (02-2100-125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일생활정책조정과	책임자	과 장	송미나 (02-2100-1255)
		담당자	전문위원	남효정 (02-2100-1259)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일시 | 2024. 10. 21(월)

장소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최 |   

사회 : 윤두섭 본부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

등록 및 개회

- 09:50~10:00 10' • 등록
- 10:00~10:25 25' • 개회식
 - 인사말씀1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사말씀2 신동천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인사말씀3 허재준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 인사말씀4 계봉오 교수 (한국사회학회,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10:25~10:35 10' • 기념사진 촬영

세션 I. 청년 사회진출 현황, 지원제도 및 조기 진출 방안 등

- 10:35~11:35 60' • 발제
 - 청년 사회진출 현황과 정부 정책 지원·성과
김유빈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 최근 기업 채용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정책 대응 방향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청년 사회진출 지연실태 및 대응방안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35~11:45 10' • 휴식 및 세션준비

세션 II. 종합토론

- 11:45~12:45 60' • 종합토론
 - 좌 장 :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토론자 :
김문길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기락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변금선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 12:45~ • 폐회

문의 : 044-211-1150,1152

* 프로그램 및 발제자(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음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공동으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장덕진 한국사회학회장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자리 해주신 발제자와 패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의 중요성

OECD는 지난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부문·대기업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구조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여기에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결국 사회진출도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연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특히, 인구위기 대응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당면한 초저출생 추세 완화(Mitigation)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몇 년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면 결혼 시점도 빨라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세 낮아질 경우
평균 초혼연령은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이 빨라지면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Adaptation)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22, OECD): (한국)31.0% (OECD 평균)46.7%

이처럼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나 정책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청년층 사회진출 시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저는 오늘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3가지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의 사회진출 뿐만 아니라, 향후 결혼을 결심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여기에 R&D와 교육투자를 늘려 AI, Bio, Green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한다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신입 공채를 통해 사회초년생들도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는 수시채용 방식을 선호하면서 경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모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충하여 청년들에게 중소기업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된다면 사회진출 전 준비기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구직자가 많음에도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사회진출 전에 충분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고졸 취업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고졸 청년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는 열악하고,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직업제고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졸취업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진출 경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졸취업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체계적인 경력개발 등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지원, 군입대에 따른 경력단절 완화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졸 출신들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도록 고졸취업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맺음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저출생 추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8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혼인건수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저희 저고위에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과 비교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 결혼 긍정인식: (3월)70.9→(9월)71.5%(+0.6%p) / 미혼남녀 결혼 의향: (3월)61→(9월)65.4(+4.4%p)
자녀 필요성: (3월)61.1→(9월)68.2%(+7.1%p) / 무자녀 출산 의향: (3월)32.6→(9월) 37.7%(+5.1%p)

이러한 변화를 확실한 추세 반전으로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출생의 직접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그 근본적 원인이 되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논의될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하나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